

개혁자의 삶

몇 년 전 스위스 제네바에 종교 개혁자인 칼빈(Calvin)이 목회하던 교회를 방문 한 적이 있다. 그 교회는 수백 년 동안 칼빈을 통한 개혁의 뜻을 잃지 않고 아직도 예배하는 교회다. 관광객들에게 문을 열어 주어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 곳을 방문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떠했을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을까? 물론 책으로 읽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그 장소를 방문하여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고 보니 많은 궁금증과 아울러 나도 그러한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젖게 되었다. 나에게 하루 종일 있다가 가라고 해도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였다. 한 참을 앉아 있다가 강대상을 돌아 뒤편에 가보니 그 당시 칼빈이 설교하기 전 기다리며 앉아 있었던 의자가 있었다. 우리로 말하자면 강대상에 있는 목사가 앉는 의자다. 그곳은 앉을 수 없도록 줄을 쳐 놓았지만 사진을 여러 장 찍어 왔다. 죽을 때까지 기억하기 위함이다. 한참을 사진을 찍고 가만히 그 앞에 서서 칼빈의 생각에 들어가고자 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때에 문득 들었던 생각은 그가 곧 전해야 할 설교를 정리하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설교였을까? 제목은 무엇이였을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와 이별을 해야 한다는 설교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5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설교는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풍성하다고 여기고 있으니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예배가 식었다고 말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 의자에 앉아 있었을 칼빈은 오직 십자가를 전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504 주년을 맞으며 혹시 우리는 너무나 빛바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색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새것을 입어야 한다. 제네바에 개혁을 일으킨 칼빈과 같이 우리도 이 지역 이 시대에 개혁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개혁은 헌신과 희생의 무릎이 없이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밀알과 같이 썩어서 결국에는 맛을 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개혁의 간증을 들려주신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 새롭게 되어야 하고 새로운 향기와 새로운 맛을 내며 새롭게 살며 새로움을 만들어 내야 한다.

하나님은 종교개혁이 500여 년 전에 일로 기억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오늘의 이야기고 내일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사람은 바로 나요 우리인 것이다.